# 스냅사진 믿음과 동영상 믿음

## (신5:1~33)

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 그 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7.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스냅사진 믿음과 동영상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스냅사진 믿음과 동영상 믿음'

오늘은 이 제목 하에서 십계명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반드시 십계명을 충족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른지 아닌지 혹은 내가 지금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무턱대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므로 구원을 얻었다'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막무가내의 믿음을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라면 나타나는 증거는 상위법인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위법인 모든 율법까지도 다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참 믿음이고, 참으로 구원 받은 상태에 있다면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마5:17~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싸운 것도 율법 자체가 나쁘고 율법과 믿음이 병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율법주의화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화 된 율법을 반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십계명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계명이 충족되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동영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스냅사진의 믿음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스냅사진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한 십계명과 율법은 절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선 참 믿음, 동영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십계명과 많은 율법이(이거 하라, 하지 말라) 거부감이 없어집니다. 신기하지요? 내가 지킬 수 있고 없고는 둘째 치고 그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으니 무겁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생기고 짜증이 났는데 동영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부담감부터 없어집니다. 그리고 동영상 믿음이 지속됨에 따라 결국 구원의 상태가 깊이를 지니게 되고 구원의 상태가 깊어짐에 따라 십계명과 하위법인 모든 율법들이 다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스냅사진'이라는 것은 재빠르게 순간적인 장면을 촬영해서 사진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포착된 장면을 사진으로 영원히 간직할 수는 있지만, 믿음은 이렇게 어느 한 순간에 포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한 순간에 믿음이 충분히 표현된 것이고, 스냅사진이 한 장면을 포착하듯이 그 한 순간에 표현된 믿음을 따라 구원을 포착해서 사진으로 내 곁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어느 한 순간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가도 그 다음날 사업장에 나가면 사업에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말썽피우는 자식을 앞에 두면 자식에게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은 영어로 moving picture로 움직이는 사진입니다. 스냅사진은 한 순간을 포착하기에 움직임이 없지만 동영상은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특별히 인터넷 동영상을 'Streaming(흐름, 냇물)'이라고 하는데 내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인터넷 선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도 스냅사진의 믿음으로 일단 한 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그 구원이 스냅사진처럼 내게 주어져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마음이 계속 예수님께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스냅사진의 믿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십계명이나 율법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오직 동영상 믿음을 갖고 냇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흐르는 중에 있어야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이 내게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복합니다마는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어떤 이름을 담게 됩니다. 좋다고 여기는 이름은 반드시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돈을 담는다면 손으로 셀 수 있는 지폐를 마음에 담을 수는 없지요. '돈'이라는 이름을 담게 되면 돈이 가리키는 진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이름을 담고 나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하여 흘러가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돈을 담는 이유는 그 돈이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마음이 그 존재를 향해서 계속 흘러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는다.'는 것은 마음에는 지성소와 지성소 바깥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대충 마음이 신경 쓰는 것은 마음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진짜로 이것은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존재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게 되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하여 마음이 계속 흘러갑니다. 자식을 담았다면 자식 인생의 성공이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되고 자식의 성공이라는 현실을 향하여 계속 마음이 흘러가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하시는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하나님까지 가는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마치 신라시대의 포석정에 물길이 있어서 왕이 잔에 술을 담아서 띄우면 둘레에 앉은 귀족들이 그 왕의 술잔을 받아서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았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계시는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보내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내 마음 받아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동선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이 상태가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 마음의 흐름이 계속될 때에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어느 한 순간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냇물이 흐르듯이 계속해서 흘러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한편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십계명을 충족시키는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십계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믿음, 동영상의 믿음이 이루어지면 십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려고 하니, 먼저 예수님의 동선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의 동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의 물이 흘러가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바른 믿음이 가능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천하시기까지의 동선은 알겠지만 어딘가 한 군데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예수님의 동선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의 동선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십자가까지 로의 준비과정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동선인 물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계속 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의 나에게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내 몸이 있는 현장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동선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원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지점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3: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이 올라가야 합니다. 마음이 올라간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면서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데 바로 믿음이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2: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과정이 있다는 것인데 구원은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동선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흘려보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뒤에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2: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드리면 우리가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할 때 요14:9~10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아버지가 안에 들어오셔서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버지가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마음과 뜻으로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어느 지점에 포착이 되느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참 믿음은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흘러가는 동영상 믿음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동하시므로 십계명과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살인하지 말라. / 간음하지 말라. / 도둑질 하지 말라.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

고, 이웃을 탐내지 않게 행동하신다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스냅사진 믿음이 아니고 제대로 된 동영상 믿음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이 나타남으로 구원이 완성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십자가로 드리는 예수님의 동선을 따르는 동영상 믿음을 포개놓고 봅니다. 제 1계명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할 때 내 어디에 신을 둡니까? 우리에게는 신을 두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두는 자리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두는 대상이 내게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그 존재의 이름을 담게 되는데 그 존재가 내게 신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이름을 담는 이유는 내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의 이유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라는 이름을 두는 것은 돈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 내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과 아름다운 외모가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왔다면 실제로 아름답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내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에 자식이 신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임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다른 모든 이름들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름이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들에 대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돈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연합함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늘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하늘로 길을 내십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그 길로 흘려보내질 때에 하늘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둘째, 셋째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신을 두는 장소가 마음의 지성소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존재의 이름을 담는 곳이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째 계명이 지켜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오면 돈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인 돈을 벌기 위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겠기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복지의 상실 아바타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동선에 이 십계명을 포개놓고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심'의 의미는 이제 이 땅의 어떠한 존재의 이름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담지 않겠다는 것이고 '마음의 지성소에 담지 않겠다.'는 것은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땅을 행해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추구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부활은 '하나님만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단지 마음을 드릴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의 진의는 '부활하여 하나님만을 추구하라'는 것을 뒤집어서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숭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계명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의 돈, 성공, 승진, 형통 등을 집어넣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의 돈이나 형통을 집어넣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부른다면, 밤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므로 세상을 등지고 따라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모든 관심거리에 대해서 다 죽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더럽혀졌던 마음이 정결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안에서 안식일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몰입하게 되어 하나님과 충실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주님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마음의 보내짐이 끊어진다면 믿음이 끊어진 상태이고, 마음이 하늘까지 흘러들어가는 것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애인과 만나지 못할 때에도 마음이 계속 흘러들어가야 진정으로 애인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마음이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 담게 되면 안식일 계명이 뜻하는 바대로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길을 따라 가다보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어지면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이 -동선의 서클 상 처음에 일어났던 구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시는 공생애 기간 동안에 있었

던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웃과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동선의 구간이 완성되면서 십계명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율법들이 다 충족될 것입니다.
십계명이 갖는 의미는 지금 내게서 십계명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면, 내 마음이 올바른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 믿음의 형태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고, 그 동선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증거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몸 안으로 내려오시게 되고, 십계명이 지켜지게 될 것이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과 모든 율법이 충족되게 행해질 때까지 마음을 하나님께 흘려보내드리라는 것입니다.

소를 잡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처럼 구약에 나온 율법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동영상처럼 흘려보내질 수 있다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신 동선을 따라 마음의 흐름이 끊기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이 사라지고, 어느덧 내 말과 행동이 모든 율법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을 스냅사진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주신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끝내고는,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 것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의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 것을 집어넣는 이유는 십자가의 주님에게 마음 드림이 스냅사진으로 끝나버리고 동영상이 되지 못하므로 계속해서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처럼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생활화'가 잘 되고 있는 증거로서 십계명과 율법이 아무 부담 없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자유자재로 말하고 행동하여도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마음을 십자가에 드리는 이 하나의 일을 할 뿐인데,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이왕 태어난 것 그렇게 한 번 살아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스냅사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이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물길을 내신 주님의 십자가에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의 공생애의 동선까지도 내게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선민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